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부산 지역 서민 금융 관계자를 만나 민생 현장의 의견 청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2.3(화) 부산 서민금융진흥원 수영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낮은 금리와 지역 접근성이 높은 미소금융 등의 지원이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대출 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금융지원 외에도 세무 상담이나 판로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전문가들은 미소금융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연체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은퇴한 지역 금융인의 노하우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과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관리하는 체계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소규모 대출로 시작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성과와 대출 수준을 연동하는 구조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현재 금융 당국에서 설계 중인 청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책 추진 시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서민 고객일수록 금융기관의 보다 세밀한 부채 및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대형 금융기관은 높은 인건비로 현장 중심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미소금융과 같이 은퇴한 금융인의 노하우와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 채널의 장점을 활용한 모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 확대가 서민 취약계층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최은경 (044-215-2861) 서기관 심상진 (ssj75@korea.kr)
-------	---------	------------	--

